

[종합·국제]

대법 진상조사단, 판사 20명 조사

‘촛불재판 논란’ 진화냐 확산이냐 이번주가 분수령

오늘 신영철 대법관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관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간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총 22명으로, 2명이 현재 해외 연수 중이어서 국내에 있는 20명 전원을 조사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사단 5명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서울중앙지법의 빈 사무실 등에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7일 13명, 8일 7명의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들 전·현직 판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 등을 추려 9일부터 신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무엇이 논란을 키웠나=촛불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던 작년 7월 소장판사 사이에서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전산 배당전환을 약속한 뒤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이후 촛불집회 제판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같은 해 10월 초 애간장을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원회를 제정하자 신 대법관이 8~11월 단독판사들에게 수차례 이

메일을 보내 ‘양형 통일’이나 ‘현행법에 따른 통상적 처리’를 강조하면서 다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이 나오면서 일선 판사들은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내부 게시판 등도 조용한 상황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공개한 판사에게)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짚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 한다”며 긍정적 측면을 인정했다.

반면, 신 대법관은 의문성 뒤에 숨어 자신을 읊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격을 하려면 실명으로 나서라”라고 맞섰다.

아무튼 진상조사단이 얼마나 국민과 일반 법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지, 진화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미-필리핀 주둔군 지위협정 폐지하라”

필리핀 시위대가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일방적인 미-필리핀 주둔군 지위협정(VFA)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말리카냥 궁으로 행진하고 있다.

경제·안보·자원 등 ‘전방위 협력외교’

李 대통령, 올 첫 순방 마치고 귀국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후 6시 7일 간의 남태평양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올 들어 첫 해외 일정인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역내 핵심 우방인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을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 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또 뉴질랜드와는 브로드밴드(초고

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전동차 및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 논의했으며,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문화, 학술,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하는 동시에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택했다.

아세안 중심국이자 비동맹지도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실토 밤방 유도유노 대통령과의 7일 정상회담에서는 서마두라 유전광구의 계약연장을 긍정 검토하고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를 위한 조립지 20㏊를 추가 확보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키 리졸브’ 연합훈련 돌입

韓·美 4만6천여명 참가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미군 증원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훈련이 9일 시작된다.

이달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예년 수준인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2만6천여명이 참가한다.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와 핵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훈련에 투입된다. 미국은 북한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작업을 염두에 둔 듯 이지스함 2척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니스호는 선체 길이 317m에 활주로 길이가 332m이며, 각종 안테나 등이 설치된 끝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0여m에 이른다.

1995년 취역한 이 항모는 2000년 1월 한국을 처음 방문해 해군과 연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 기간에는 한·미 연합 아의 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oal Eagle)도 실시되며 한국군은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존 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5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 범글로벌 이

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제목의 사설로 다뤘다. 그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 장관은

“돈을 지불하고 숙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학교”라고 밝혔다.

여론의 뜻을 맞은 사이트는 오픈 하루 뒤인 6일 초기회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글을 띠웠다. 이들은 사전 접수된 주문에

하루만에 접은 프랑스 속제 대행 사이트



대해서는 8일 내에 100% 환불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한국에서 속제 대행 사이트의 등장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왔지만,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얼마든지 대행자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는 최근 사교육

시장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인상적인 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 제재도 아닌,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운영자의 용기와 사회 자정

시스템이 부럽다. /camus@

中 상하이 박람회 본격 흥보

중국 상하이(上海)가 내년에 열리는 세계박람회 흥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화통신 7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국제여행은 조만간 200개 일본 여행사를 순차적으로 초청, 박람회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상하이여행국은 지난 6일 일본여행그룹 JTB와 일본근기국 제여행, 일본여행, 명찰관광, 일행여행, 전일공여행,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 8개 여행사를 초청, 박람회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한편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에는 지난달 말 현재 231개 국가와 국제단체들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 /연합뉴스

문의 즉시 직접 만나는 상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4분 노하우 전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구축 구축하세요!!

포털 생활이 편리한하세요!!

한국어판으로는 적지 않은 서비스 제공하세요!!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

062) 512-1144